

28장 - 복의 근원 강림하사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 멘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9월 22일(화) 기도 담당 : 이희만 집사

2020년 9월 21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8장 다 같 이
기 도 이창진 집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8장 35~39절 인 도 자
설 교 『 끊을 수 없는 사랑 』 엄재광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0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로마서 8장 35~39절 >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감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참고구절: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노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9월 21일(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귀하고 복된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환경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19로 세상에서 단절되어 보이고, 비대면 시대 속에 마음마저 멀어져가는 흐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예배드린 성도 한 명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과 가정들,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 경제적인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치료의 광선과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돌보시사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말씀 위에 질서가 세워지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본 교단 총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참석한 모든 총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를 세움에 귀한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허락하신 목회 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옵시고, 협력하시는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새문안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